

## 4월 4주(4월 24~28일) 경기 지역일간지 대선 관련 기사제목

### ● 경기일보

날짜	면	기사제목
2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요구 재탕 수준...실천의지도 의문 ; 윤곽 드러난 경기지역 대선 공약 / 文,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광역교통청 신설 / 洪, 남부 최첨단 일자리·북부 복합리조트 등 조성 / 安, 균형발전 제시... 서남부 4차산업 전초기지로</li> <li>■ [대선후보 인터뷰-바른정당 유승민] "상생·균형발전 협의체 구성해야"</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文 "北核 다자외교"-洪 "강한 대북억지력"-安 "국제 공조" / 劉 "굳건한 한미동맹"...沈 "한반도 비핵화 목표" 安·劉·沈 "돼지홍분제 논란 洪, 후보직 사퇴하라" 洪 "45년 전 친구의 성범죄 기도 막지 못해 죄송" / 북한 핵미사일 해결 방안 5인 5색 / 심상정·유승민·안철수 '돼지홍분제' 논란 홍준표 사퇴 촉구</li> <li>■ 文 "대세론 굳힌다" vs 安 "돌파구 찾는다" ; 중반전 접어든 '장미대선' 후보별 전략 / 洪, 안보 행보로 '진보vs보수' 프레임 유도 / 劉, 인물론으로 차별화...沈, 정책대결 유지</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대선후보 부인들 '내조 경쟁'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조계종 난치병 어린이 돕기 더 나눔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집중유세에서 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23일 낮 부산 동구 부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부고의 날 행사에 참석, 부산고 출신인 안 후보의 동문들과 인사하고 있다.</li> <li>■ 文 "안보"-洪 "보수 결집"-安 "통합"...주말 총력 유세전 ; 文 "전작권 조기 환수... 북핵 억제 전력 최우선 확보"/ 洪,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보수성향 원로인사들 만나 / 安 "보수·진보 대통령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것"</li> <li>■ [사진] 대선후보 공보물 발송작업 한창 ;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23일 수원 광교1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에 배달할 대선후보 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li> <li>■ 찬조연설 첫 주자...文·洪·安 모두 '여성시대' ; 文,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 洪, 부인 이순삼씨 내세워 / 安, 전투병과 첫 여성장군</li> <li>■ 지역 최일선서 표심몰이 나선 도의원들 ; 민주당 박승원·김성태·이재준 한국당은 박재순·김동규 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세균 의장, 4당 원내대표와 회동 연기 ; "文 의혹 규명" 민주 뺨 3당 상임위 소집 요구</li> <li>■ 추미애 "安, 갈수록 박근혜·김기춘 따라해"</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사퇴 없다...완주해 진정한 보수의 가치 지켜낼 것"-바른정당 유승민 ; 밑바닥 민심부터 변화 시작, 대역전 드라마 만들 것 文·安·洪 보다 나은 점...경제·안보 등 문제해결 능력 4년 중임 대통령제 안정적...지방분권형 개헌 집중</li> <li>■ 임진각서 안보행보 ; 안보초석은 "한미동맹 文·安 대통령되면 불안"</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찢기고·사라지고...선거현수막 수난 ; 경기북부청, 위법행위 땀 엄정 대처</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나물에서 배우자! 구원살아야 하는 이유(외부칼럼)</li> <li>■ 대선후보들의 진정한 문화정책이 필요하다(외부칼럼)</li> </ul>
2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1. 4차 산업혁명 - 최적의 입지 조건... 경제위기 극복 선도 가능 ; 북부선 일산 테크노밸리 주목 서부 광명·시흥 예산지원 필요 추진시 총 20만명 일자리 기대</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 우선순위 없는 '백화점 공약'...대선 후보는 검토도 못했다 ; 10개 핵심과제 전달한 타 지자체와 달리 71개 제안 메니페스트본부, 소용 여부 확인 결과 사실상 제외</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文 "통합 리더십" ; '캐스팅보트 지역' 천안 공약 대한민국 새 교통 중심도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약속</li> <li>■ 洪 "보수 대단결" ; 최대 표밭 경기서 집중유세 4.12 보선 승리 재현 기대 "우리가 보수우파 본당" 강조</li> <li>■ 安 "대탕평 시대" ; 호남 지지층 굳히기 총력 4차 산업혁명 미래 준비 "제2의 DJ 되겠다" 호소</li> <li>■ 눈물·어머니·변화 내세워...유권자 감성 자극 ; 이미지 변신 시도...표심까지 흡수 전략</li> <li>■ 沈 "60년간 지속 재벌공화국 개혁하겠다" ; 전주서 경쟁 후보들 비판 흥준표에 후보 사퇴 촉구</li> <li>■ [대권현장] 文측, 송민순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安측 "TV토론회서 네거티브 동원 안할 것"</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승민 사퇴냐 완주냐...뒤숭숭한 바른정당 ; 한밤 긴급의총서 후보 단일화 등 놓고 치열한 격론 劉 "TV토론후 민심 변하고 있다...남은 기간 최선"</li> <li>■ 남탓-네거티브로 얼룩진 TV토론 ; 후보들 비전·정책은 뒷전...'무용론'까지 제기</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려한 포장과 내용의 진정성(외부칼럼)</li> <li>■ JP의 침묵</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선로고송(내부칼럼)</li> <li>■ [사설] 대선 후보들 공약, '수정법'만 피해간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2. 불공정거래 조정·조사권 부여 - 대기업·중기 '갑을 관계' 개선...지자체에 권한 이양해야 ; 공정위 담당 직원 8명에 불과, 제대로 된 감시 불가능 道 상담센터는 법적 권한 없어 실질적 대책 어려움</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선판 뒤흔들 '反文 단일화'...洪·安·劉는 동상이몽 ; 홍준표 "劉, 안 할 수 없을 것...安은 정체성 달라" / 박지원 "제의 와도 논의 않겠다" 安 자강론 강조 / 유승민 "완주 변함없어...흔들림 없이 임할 것"</li> <li>■ [치열해지는 정책공약 경쟁] 文 "대체공휴일 확대, 비정규직도 유급 휴가" 洪"2천cc 이후 전 차종 유류세 반값 인하" 安 "취업준비 청년 6개월간 30만원씩 지급"</li> <li>■ 격차 벌어지는 文-安...양강구도 흔들 ; 文, 1일1정책 발표...'설화' 주의 / 洪, 안보 행보로 보수 흡수 주력 / 安, 협치 강조...정책·비전 제시</li> <li>■ [대권 현장] 박지원 "安 당선돼도 총리 내지 않을 것" / 한국당 "洪 181개 공약에 총 90조 소요"</li> </ul>
2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소중한 한표' 재외동포들</li> <li>■ '안정·서울대' 대선 징크스...하나는 깨진다 ; 5개 정당의 대선후보들 모두 적어도 둘 중 하나엔 해당 '10년 주기설·미국 정권' 징크스...이번에도 통할까 주목</li> <li>■ [대권 말말말] "DJ(김대중)적자라고 외쳐왔던 박지원 대표와 잠깐 이 당에서 정치를 했던 안철수 후보를 보면 '좀 똑바로 배우시지'라는 생각이 든다" / "대선이 2주일 남았는데 벌써부터 샴페인을 흔들며 승리에 도취한 듯 행동하고 있다" / "무능 부패 타락한 기독교권과 나라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한국의 마크로이 되겠다" / "지금의 국가 위기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뒤엎으려는 반국가 세력이 함께 획책해낸 결과물이다"</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공간 많은데...전봇대에 가려진 후보 ; 2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거리에 내걸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가 우측에 여유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뒤에 부탁돼 특정 후보의 모습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다.</li> <li>■ 선거 벽보 무심코 훼손하다가 '큰 코 다친다' ;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납부청, 선거법위반 28건 수사 "선거분위기 저해 행위 강력 단속"</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못 다한 이야기(외부칼럼)</li> <li>■ 식민사학자들에게 사기당한 노무현 정권(외부칼럼)</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28.5cm...19대 대선 투표용지</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3. 기초연금·생활수급자 선정시 공제기준 변경 - 중소도시로 분류된 道...14만명 복지혜택</li> </ul>

		<p>못 받아 ; 주택가격 6대 광역시와 비슷한데도 중소도시 기준 적용 기초연금 대상자 전국 평균보다 낮아...역차별 해소 시급</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율 안오르니...단일화 놓고 바른정당 '사분오열' ; 劉 "黨이 잘못된 길 가고 있어...입장 변화 없다" 일부 의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려는 거냐" 불만 인천·부산 기초의원 탈당...한국당 복당 잇따라</li> <li>■ 사드 전격배치...대선후보들 확연한 입장차 - 文 "부적절" 安 "절차 준수" 洪·劉 "환영" 沈은 "원천무효" 주장</li> <li>■ 文 "가짜안보를 진짜안보로 바꾸겠다" ; 포천 통합화력 격멸훈련 참관</li> <li>■ 安 "단일화 없이 국민만 믿고 갈 것" ; 춘천 유세서 거부 의사 재확인</li> <li>■ [대권현장] 안민석 "최순실 재산, 박정희 시절까지 조사해 환수" / 김미경 교수 "남편 안철수, 거짓말 유전자 없다" / 김영우, 부산-서울 희망페달 자전거 국토대장정</li> </ul>
2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손 흔드는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한 후 견학 온 학생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li> <li>■ [사진] 홍준표, 암참 간담회 참석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국상공회의소초청 간담회에 앞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li> <li>■ [사진] 쇼트트랙 헬멧 선물받은 안철수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6시 강릉시 금성로 로터리 일대에서 지역 거점 유세 중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송경택 선수로부터 헬멧을 선물 받고 있다.</li> <li>■ "날좀 보세요"...뜨거운 스킨십 이색유세戰 ; 文, 롯데 유니폼 입고 "부산 갈매기" / 洪, 개혁 부각...'세탁기 퍼포먼스' / 安, '대선 바람 분다' 바람개비 유세 / 劉, '자전거 유세단' 골목시장 누벼 / 沈, 세그웨이로 대학가 청년표 공략</li> <li>■ 한국당, 安 때리기 줄이고...文에 화력 집중 ; '보수우파' vs '진보좌파' 양강구도로 막판 추격전 양상</li> <li>■ [대권 말말말] "지역주의 색깔론을 들먹이다가 안통하니 야합카드를 꺼내고 있다. 원샷 단일화는 원샷 독배로 끝날 것이다" / "40여년 전 '병장 문재인'은 어영부영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군 생활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배웠는가"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태극기 애국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 "중편을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은 보면서 참 후회를 한다" / "홍준표 후보, 입만 열면 막말과 거짓말 늘어놓는 못 된 '버릇' 먼저 고치라"</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롱당하는 보수표-'홍·찍·문' ; 당락 결정할 종속변수 전략 평생 몇</li> </ul>

		<p>번 남지 않은 대선 소신 투표해야 스스로 떳떳(내부칼럼)</p> <p>23 ■ 300만 인천은 종이호랑이(내부칼럼)</p>
28	3	<p>■ [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4. 공공어린이집 확대 및 국비지원 강화 - 보육정책 현실적 대안 '경기도형 어린이집' 확대해야 ; 도내 1만 2천 어린이집 중 국공립 5.2% 뿐 道, 기존 민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요구</p>
	4	<p>■ "경기도가 승패 좌우"...대선후보.선대위 유세 총력전 ; 민주당, 성남 서 "이재명이 꿈꾸는 적폐청산 文의 꿈" / 자유한국당, 이우현 중심으로 동서남북 유세 펼쳐 / 국민의당, 고양.의정부에 손학규 투입 '안풍' 진력 / 바른정당 유승민은 경기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참석</p> <p>■ [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구미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p> <p>■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지역 거점 유세를 펼치고 있다.</p> <p>■ 文 "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신설해 정례화" ; "자치분권 논의 최고 기구로"</p> <p>■ 洪 "5천년 가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 가장 존경" ; TK서 '동남풍' 확산 주력</p> <p>■ 安 "경북 소외되지 않는 통합정부 만들겠다" ; 보수층 표심 확보 광폭 홍보</p> <p>■ 沈 "주한미군 철수 요구...대화의 여지 충분" ; "현 상황선 北인권결의안 찬성"</p> <p>■ 가족들도 뵈는 ; 전국 누비며 지원 유세...친근한 이미지 도움 재래시장 상인들과 스킨십...소외계층도 챙겨</p> <p>■ [대권 현장] 한국당 "이번 주말 洪.安 골든 크로스 일어날 것"</p>
	5	<p>■ "촛불정신 계승 진짜 정권교체...정의가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수행 할 수 있는 유일 후보 당선되면 국민 평가하기 끝내고 '대평탕 인사협치' '일자리 대통령' 약속...靑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 것</p> <p>■ 노무현 전 대통령은... ; '사람이 먼저'인 정치 숙명으로 넘겨주신 분</p>
	23	<p>■ 슬로건 정치, 과연 승자는(내부칼럼)</p> <p>■ [사실] '사실상 당론' 따로, '형식적 당론' 따로 국민의당, 사드 가동돼도 여전히 어정쩡</p> <p>■ [사실] 출생아 수 최악인데, 대선후보 공약 안일하다</p>

● 경인일보

날짜	면	기사제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인천 잡으면 대권 잡는다' ; 경기·인천 1위 후보는 모두 당선 투표율 전국 평균 안돼도 영향력 서울 1위해도 '경인' 놓치면 낙선</li> <li>■ [사진] 표정관리하는 후보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li> <li>■ [2017 경인 대선 어젠다 4. 미세먼지] 中 가깝고 인구밀도도 높아 '대기질' 최악 ; 포진 등 국내 기준 두배 초과...배출시설 규제강화 절실 인천은 7대 도시중 '최고' 화력발전소 등 국가시설 '주범'</li> <li>■ 안보 색깔론 집중 도덕성 문제 난타-선관위 1차 TV토론회/정치 ; 安·劉·沈 "홍준표 사퇴하라"</li> </ul>
2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대선 D-15 선관위 1차 토론회/정치] "안보팔이" "거짓말" "무자격" 거침없는 원색공방</li> <li>/ '북핵 위기상황' 한국의 주도권 대책은 ; 문 진짜 안보가 필요한 시기 '다자외교'로 북핵폐기, 홍 美와 합의해 전술핵 한반도 배치 '힘 우위'서야, 안 조건 갖춰진 협상테이블서 美 정상회담 中 설득, 유 한·미동맹 기반 중국 동원 강력 재정압박해야, 심 미국 억지력만으로도 충분...2단계 비핵화 추진</li> <li>/ 권력체제 개편방안은 ; 문 책임총리·장관제 통해 대통령 집중된 권한 분산, 홍 국정원 보안수사기능 강화 검찰총장 외부 영입, 안 개헌통해 대통령제 견제...수사권·기소권 분리, 유 수석비서관 없는 청와대, 국회의원 인원 감축, 심 투명한 정보공개 공수처 신설·해외정보원 개편</li> <li>/ '대북송금·햇볕정책' 쟁점화 ; 홍 640만불 수수 없다 해명 대북송금등 의혹질어, 문 노 前대통령 받았다는 사실 인정안돼 불기소, 유 햇볕정책·개성공단등 쫓대없이 계속 말 바꾸기, 안 상황에 맞게 국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 해야해</li> <li>/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사전문의' 진실공방 ; 홍 송민순 前장관 회고록에 의하면 文후보 거짓말, 유 대통령이 사드등을 北에 '사전질의' 말되느냐, 문 사실 아냐...기록한 연설기획·안보비서관 확인, 심 나였어도 기권결정 했을것 진실공방 이해안돼</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표심잡는 "내조" ; 제19대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각당 후보 부인들이 주말 유권자 마음잡기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미경 교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부인 오선혜씨</li> </ul>

		<p>■ [후보 '24시']  / 文 "통합 정부 필요" ; 이념.세대 등 초월 '추진위' 출범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도 발표 영입인사 위주 특별기획단 첫 유세  / 洪, 모처럼 '자신감' ; 한자릿수 머물던 지지율 상승 조짐 안보이슈 원로·기독교 인사 예방 문안 강력 압박...보수 결집 나서  / 安 "후보들 반성을" ; "문·홍·유, 벽보 슬로건 문구대로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나" 목청 PK방문 공약제시 등 표발 다지기  / 劉, 파주 '안보행보' ; "北인권결의안, 진보 안보 불안" 지뢰 도발 '평화의 발' 동상 묵념 판교 일자리창출 경제 포럼 참석  / 沈 "개혁 키 가졌다" ; "후보들 표만 얻으려고 구걸" 비판 "누구든 당선되면 농업정책 실패" 북한산 휴일 등산객에 '지지호소'</p>
	5	<p>■ 치우침 없는 정치성향 '대한민국 축소판' ; 역대 대선 캐스팅 보트 권 경기·인천 '우연 아닌 필연' 도시-농촌접경지 복합적 특성에 전국 인구 유입 영향 대표성 입증 / 인천·경기는 '작은 대한민국' / 19대 대선 의 핵, 인천·경기</p> <p>■ [사진] 야구장 앞 마주친 선거운동원 '유세경쟁'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유세가 한창인 23일 오후 수원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원과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이 유세를 진행하며 교차하고 있다.</p> <p>■ '송민순 파문' 뜨거운 장외공방 ; 범보수·국민의당, 文 대북관 맹공 文측 '북한팔이' 일축...적극 반박</p> <p>■ [대선평]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모두 하나가 됐다" / "대통령 되면 김정은 무릎 꿇리겠다" / "1+1"이라는 건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다" / "이런 엽기적 후보와 경쟁한다는 게 참으로 참담하다"</p>
	25	<p>1 ■ [2017 경인 대선 어젠다 5. 문화] 경기, 구도심-신도시 '문화격차 해소' 첫 숙제 ; 중앙정부 직접적 예산지원도 요구 인천은 '한예종 유치' 목소리 높여</p> <p>1 ■ [이것이 팩트] 대선화두 '학력차별 철폐' 한 발 앞서 움직인 경기도 &lt;남지사 대선 출마때 공약&gt; ; 道 산하기관 인재 채용 실태 - 정규직 서류전형 없애 기회 보장 기재는 하지만 면접은 블라인드 비정규직은 아직 일반방식 적용</p> <p>3 ■ [이것이 팩트] 누가 당선돼도 "능력중심 채용"...세부 해법은 '제각각' ; 대선후보 '학력차별 철폐 공약'-文공공부분 '블라인드제' 전면도입 / 洪 관련법 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 / 安 정확한 직무능력평가 방식 신설 / 劉 "취직때 차별없어야" 원론적 입장 / 沈 나이·사진등 제외 '표준 이력서'</p> <p>4 ■ [후보 '24시']  / 文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것" 안희정&lt;아내 민주원씨&gt; 앞세워 충청</p>

	<p>민심 '구애' ; "영호남 등 전국 골고루 지지받는 통합 리더십 발휘할것" 지지호소 서민·신혼부부 위한 주거정책 발표 "집무실 옮겨 권위·불통 끝내겠다"</p> <p>[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p> <p>/ 安 "정의 이기는 나라 만들것" 전남 목포 찾아 '표발 다지기'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 메카 조성"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준비해야 20년 먹거리 DJ·호남 정신" 목청 5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p> <p>[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영산로 목포역 광장에서 지역 거점 유세를 펼치며 한 시민의 아이를 안고 채미소짓고 있다.</p> <p>/ 洪, 강원·경기 동북부지역 공약 보수우파 강조 '흩어진 표' 사냥 ; 안철수 부호 지지율 주춤 틈타 '문·홍·안 3강 체제' 구축 전략 '한반도 위기 상황' 내세우며 남양주 등 접경지역 집중 유세</p> <p>[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구리 돌머리 사거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p> <p>/ 劉 "안보, 누구보다 자신있다" 강원도 처음 방문 '표심 자극' ; "김정은 꿈쩍 못하도록 하겠다" "北 도발해도 핵문제 반드시 해결" "평창 동계올림픽 부족한 예산 대통령 되든 안되든 지원할것"</p> <p>[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p> <p>/ 沈, 평택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 '끌어 안기' ; "해직자 19명 8년만에 돌아온 날 해고가 죽음 되지않도록 하겠다" 전주 모래내시장·전북대 유세 영세 상인·청년들에 지지 당부</p> <p>[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복직 노동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p>
5	<p>■ [나를 말한다 1] 편집자주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주자들이 경인일보 지면 '나를 말한다' 코너를 통해 자신을 직접소개합니다. 총 4회에 걸쳐 신변잡기 등 대선 후보들의 일상과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대선주자를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p> <p>■ 사그라지지 않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 北 인권결의안 '기권' 공방 가열-송, 노 전 대통령에 쓴 손편지 공개...학교 피해 우려 총장직 사퇴 문 후보측, 명예훼손 등 검찰에 고발 "북풍공작에 불과" 정면돌파</p> <p>■ [대선포트] "동지애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려 승리가 피부로 느껴져" / "깡패처럼 돈 뜯어가는 북, 김정은 정권 힘으로 제압하겠다" / "</p>



		<p>아내에게 밥 달라는 말 한 번도 못해봤다" / "의총이 무난하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 /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부터 30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 역대 최다 29만명 참여...동포청 설립 등 정당별 공약 발표도</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성단] 송민순 홍준표 회고록(객원논설 칼럼)</li> <li>■ 차기 대통령께 바란다(외부칼럼)</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설] 낡은 이념논쟁과 네거티브 '표의 역풍' 부른다</li> </ul>
26	1	<p>■ 경기.인천 유세 '빈손으로' 스쳐만 갔다 ; 文·洪安 '지역 확대' 여전해 타지역 오가며 얼굴도장 찍기 현안·비전 없이 뻘한 메시지 약체 劉·沈은 상당시간 할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경인 대선 어젠다 6. 체육] 비인기종목 기업 지원 '감소세' 세금감면 등 제도적 장치 절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선대위원장 '우리가 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60곳 지역위 '내 선거'처럼 한표 호소 ; 文후보, 능력·도덕성 모두 갖춰 경기 남·북부 경제적 격차 해소 서울 출·퇴근 교통문제 풀어낼것</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손가락 기호 기억해 주세요" ;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li> <li>■ [후보 '24시']</li> </ul> <p>/ 文 "모든 국민에 쉼표있는 삶 제공" ; 대체공휴일 확대 '휴가·레저 정책' 비정규직 월 1일 해당 '유급 휴가' 관광지 공공연수원 일반인에 개방</p> <p>/ 洪 "한반도 안보유지 리더쉽 갖춰" ; 美 선제타격 않도록 北도발 경고 실행민에 보수우파 강조 표 호소 '유류세 반값 인하' 서민층 공략</p> <p>/ 安 "학자금 대출금리 1%로 내릴것" ; 상환 소득기준 올려 자립기회 제공 대학 입학금 폐지·장학금제 개선 국민먹거리 기본권보장정책 제시</p> <p>/ 劉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만들것" ; 장차관 남녀 동반제 점차 확대 여성 인재들 발굴 반드시 등용 가벼운 성범죄 형량 강화할 것</p> <p>/ 沈 "개헌가정 남녀 동등권 명문화" ; 부처 개편 성평등 예산 공정집행 국내 최초 남녀 동수내각 꾸릴 것 전통시장 찾아 달라지는 삶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들 승패 가를 수도권 '무관심' ; 문재인, 수원 유세때 언급 안해</li> </ul> <p>/ 홍준표, 지역 현안 원론적 수준 / 안철수, 청년과 희망 토크 취소</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말한다 2]</li> <li>■ [대선포석] "안전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 "막노동 경기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 만들어 달라" / "강간미수범이 대통령 후보...누가 성폭력을 얘기하겠나" / "갈라치기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보수 '3자 단일화 카드' 시끌 ; 바른정당 제안에 후보자들 '입장차' / 洪 "남재준.조원진과 대통합해야" / 安, 거부 의사 밝히며 자강론 고수</li> <li>■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1.조현수 평택대 교수] 도덕성·합리적 리더십 함께 갖춰야 ; 안보·성장등 확고한 신념 필요 국민들 '마음의 상처' 치유해야</li> <li>■ [사진] 재외투표 첫날 '베트남서 소중한 한 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대 대선 TV토론에 대한 소회(외부칼럼) ; 5명이 18분내 상대 후보에 질문 자기방어·정책 설명 하다보니 충분한 논의없이 유권자 혼란 자기 강점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 약점 공격 네거티브로 변질 반언 팩트 확인 검증시스템 절실</li> <li>■ 투·개표 절차 관리의 공정성과 아름다운 선거(외부칼럼)</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분권을 의제화 해야(외부칼럼) ;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사업·예산 지방 이양 출연금 지원도 총약예산제로 통합교부해야 문화계·지자체, 재정확보 방안 논의 준비를</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벽보 훼손, 큰 벌&lt;2년 이하 직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gt; 받는지 몰랐어요" ; 선거법 인지 못한 청소년들 호기심·장난으로 경찰 적발 관련 지도·지침교육 등 시급</li> <li>■ 대선기류 만난 '군공항 이전' 전력적 침묵 vs 선거 이슈화 ; 수원시, 갈등보다 '상생·협력'...정부 사업 강조 현재 심판·행정소송 추진 화성시, 반대의사 어필</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분석 '대선의 경제학' 후보들 선거자금 규모] 경기도 유세차 '62&lt;문재인&gt;-58&lt;홍준표&gt;-61&lt;안철수&gt;-10&lt;유승민&gt;-7대&lt;심상정&gt;' ; 文·洪·安 400억이상 예산 운용 劉·沈 100억이내 '부익부빈익빈' 물량공세. 포인트 전략 등 대조</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선대위원장 '우리가 편다'-이우현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안보·민생 대통령' 유권자 선택 받을것 ; 洪후보 이미지 많이 올라가고 있어 위원장·의원·당원 "필승" 한마음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 풀어야</li> </ul>
2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견학 온 학생들에 '엄지척'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명훈련을 참관한 후 견학 온 학생들의 환호에 '엄지척'을 해 보이고 있다.</li> <li>■ [사진] 노인회 초청 토론회 입장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통령선거 대한노인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li> <li>■ [사진] 선물받은 '쇼트트랙 헬멧'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로터리 일대에서 지역 거점 유세 중 쇼트트랙 헬멧을 선물받고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li> <li>■ [사진] 공원 누비며 '두바퀴 유세'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6</li> </ul>

	<p>일 오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자건거를 타고 손을 흔들며 유세를 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출근길 근로자에 "굿모닝"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펼치고 있다.</li> <li>■ [후보 '24시'] / 文 '튼튼한 대통령' 이미지 부각 ; "1천인 안보전문가 지지 역대최강" 포천시 '통합화력격멸 훈련' 참관 "사드문제 차기정부 이양 바람직" / 洪, 대구 찾아 '보수표 끌어안기' ; 서울 토론회서 '안보 안정론' 강조 '비문 단일화' 부정적 입장 재확인 서문시장 방문 영남지역 정서 자극 / 安, "환동해경제융합허브 구축" ; 춘천·원주·강릉 방문 표발 다지기 5대 공약 제시 '20년 먹거리' 약속 부인 김미경 교수 수원서 지지호소 / 有, 노인복지 '어르신 표심 자극' ; 치매환자 지원 강화등 공약 제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할 것" 목청 딸 유담씨와 신촌·홍대일대 누벼 / 沈, 울산 현대重·시장 민심 훑기 ; "조선업 살리려면 노조와 해결해야" 2주째 고공농성 노동자 2명 격려 호계시장 돌며 지지율 상승 자신감</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말한다 3]</li> <li>■ [대선 특특] "1천명의 '황충'과 함께 진짜 안보정권 창출에 나서겠다" /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해주기를 바란다" / "여러분 '심알찍'을 아시나요"</li> <li>■ 대선후보, 사드 배치 '엇갈린 입장' ; 洪·劉 "환영"-文·沈 '강한 유감' 安, 찬성하지만 절차 지적 '모호'</li> <li>■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2. 김연성 인하대 교수] 국민들 '태평' 누릴 수 있게 이끌어야 ; 민심 살피고 파악해 정책 반영 결과 속 충실 '문질 빈빈' 바라</li> <li>■ [사진] '길이 28.5cm' 19대 대선 투표용지</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어나는 복지공약, 지방세를 증세하라(외부칼럼) ; 국세로 거둬 나눠지고 보다 지방세로 확충하는게 더 효율적 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이 어떤 혜택 되돌아오는지 인식 조세저항 줄고 세부담과 복지가 대응관계 보일때 투명성도 높아</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과 스트레스와 정치(내부칼럼) ; 경제 살리고 자주국방...후보마다 큰소리 토론회 보는 국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아 암 걸리게 하는 대통령 이젠 안보고 싶다</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선후보, 군공향이전 눈치보기 그만" ; 道·수원·화성 시민단체 비판 주요 정당 분명한 입장 요구</li> <li>■ [사진] "사과하라"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촉구 기습시위 ;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천군만마 국방안보 1천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장 앞에서 성</li> </ul>

		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강체제 깨지고 '2위 싸움' 불붙나 ; 安 뒷걸음 洪 상승세 1강2중 전환 / 두번째 주말 경기·인천대첩 출격 / 文, 네거티브 자제 대세론 굳히기 / 洪.安 '세걸집' 통해 뒤집기 노력</li> <li>■ [2017 경인 대선 어젠다 7. 일자리] 中企 93만곳 '수출 활로' 열어 줘야</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선대위원장 '우리가 된다'-박주원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삶 자체가 경쟁력 '安 녹색돌풍' 불것 ; 道, 정치·경제·사회 위기 집약지 국민에 직접 답찾는 현장 리더쉽 안보·일자리·저출산등 숙제풀것</li> </ul>
2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 '24시'] 문'경기'·홍 '경북·충청'·安 '제주·TK'·劉 '대구'·沈 '서울' 공략 ; 하루가 짧은 '숨가쁜 행보'</li> <li>/ 문 성남 찾아 "국정 설계 준비 끝 성공한 대통령 되겠다" 지지호소 "이재명 시장 꿈 이루게 길 열것"</li> <li>/ 홍 보수진영 주도권·안보' 부각 막판 '문-안-홍 3자 구도' 전략 아산 방문 "영충정권' 세우겠다"</li> <li>/ 안 文겨냥 "자신과 생각 다르다고 호통치는 최악 '불통대통령' 될것" 대구서 '지방분권 개헌 약속' 협약식</li> <li>/ 유 '국토대장정팀'과 대구서 만나 담티역~범어사거리 걸으며 '유세' "동성에 차별·성소수자 편견없다"</li> <li>/ 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승자독식·성장만능주의 넘어설것" "청년 절절한 마음·절박한 삶 해결"</li> <li>■ [사진] 시민들 "손 좀 잡아주세요"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열린 퇴근길 집중유세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li> <li>■ [사진] 미래 유권자 안고 '찰각'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천안터미널 앞 광장에서 한 아이를 안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li> <li>■ [사진] "포스터 선물 받았어요"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지역 거점유세를 펼치던 중 한 초등생이 자신의 바람과 함께 안 후보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li> <li>■ [사진] 동료의원들과 '뜨거운 포옹'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담티역에서 새로운 보수를 알리며 국토대장정 중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단원들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li> <li>■ [사진] 지지자와 반가운 인사 ;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역 앞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중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安洪 'TK 목장의 결투' 2위 크로스? 관전 포인트 ; 영남보수층 표심 대선 변수 부상 안 '대구'·홍 '구마·김천' 공략</li> <li>■ 정책 발표·지지 선언...장외 유세전 '후끈' ; 文, 농어업·자치분권 공약 쏟아내 / 洪, 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 인하 / 安,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 지원 / 劉, 10대 분야 165개 정책안 내놔 / 沈, 박찬욱·장항준 감독 지지의사</li> <li>■ 범보수, 문재인·안철수 '쌍끌이 공세' ; 홍측 "문, 발언 절반이상 거짓...안, 제왕적 후보 전형" 비난 / 유측, 안민석 "단기사병 총 못짜" 文 특전사 출신 강조 비판</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말한다 4]</li> <li>■ [대선 특특] "그분(성소수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다" / "문(재인)을 열고 안(철수)을 보니 홍준표 밖에 없다" / "동성애는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니다" /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심상정 대 문재인의 구도"</li> <li>■ 민주당 vs 국민의당 '날선 신경전' ; BW 혈값 매입 의혹 등 제기되자 安측 민주 안민석 등 6명 檢 고발</li> <li>■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3.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담대한 복지국가 밑그림 그려야 ; 보편주의 근간 인간다운 삶 보장 증세 등 정책강화 비전 보여줘야</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성단] 맥거핀 효과(내부칼럼)</li> <li>■ '인형의 집' 이후의 여성 ; 대선후보, 여성가족부 열할 강화 성평등부 등 기구 전환 잇단 공약 여성대통령 배출했지만 실패 차기정부, 달라진 女性지위 반영 고유성에서 철학·정책적 균형 이뤄 시대적 요청 잘 감당해가길 바라(외부칼럼)</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거티브가 더 낮겠다 ; '장미 대선' 후보들 여전히 장밋빛 공약만 남발 국가채무 627조인데 5년후 생각만해도 무섭다 '헐뜯기 지양 정책대결 하라'는 사회분위기 탓(외부칼럼)</li> <li>■ 21세기 참여민주주의를 기대하며(외부칼럼)</li> </ul>